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11~1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이 있었다. 회담 결과만을 보면 협의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양측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고 북 측은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했다. 우리 측은 DMZ 평화공원, 민생·환경·문화 등 3대통로 개설,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남북한의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북 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해야만 다른 의제를 토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북 측은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입장 차이 확인한 제1차 남북 당국회담

사업의 연계를 주장했고 우리 측은 분리를 강조했다. 우리 측은 북 측은 입장을 감안해서 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라는 유연성을 보여 주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관광객 피격 사건의 3대조건인 진상규명·사과·재발 방지 등이 문서로 보장되어야 한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조지한 재산 동결과 몰수 재산이 원상대로 복구돼야 한다. 관광객의 신변 안전과 재산권 보호 등 관광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관리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 설치되어야 한다. 관광 대가의 현금이나 현물이나의 범주도 정해야 한다.

우리 측은 실무회담을 통한 조건을 충족한 후 관광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전략을 가진 듯하다. 북 측은 실무회담 개최가 관광 재개를 뒤로 미루려는 시간 끌기로 판단하고 이산가족 해결과 관광 재개의 동시 이행·동시 추진을 주장했다. 북 측은 당국회담에서 관광 재개에 합의한 후 조속한 시일 내 실무회담을 개최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자는 입장을 가진 듯하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 가는 과정

이다. 우리 측이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 측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가운데 매년 4000명 정도가 고향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나이는 되돌릴 수 없으니 비가역적이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

금강산 관광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문제이다. 북측이 도발을 계속하면 관광은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혈연을 천륜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교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면서 손해 볼 것이 없다.

일부에서는 금강산 관광의 현금 대가가 핵개발에 전용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관광 대가는 연간 2200만 달러로 예상되고 개성공단 북 측 근로자 임금은 연간 1억 달러 상당이다. 개성공단 임금은 관창고 20% 수준인 관광 대가는 핵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현금 대가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북결의안은 합법적인 계약과 정상적인 송금은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현대아산과 북 측

아태평화위원회 간의 정상적인 계약과 남북 양정부의 보장으로 이루어졌다. 관광 대가는 우리 측의 은행이 중국 또는 러시아의 은행을 거쳐 북측 은행으로 송금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벌크 캐시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남북한은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4년차에 남북관계의 성과가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도 내년 5월초 제7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안정화가 요구된다. 내년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 2월초 제2차 당국회담 개최가 예상된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통 큰 교환을 기대한다. 북한의 변화는 대화와 교류에서 시작된다.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한의 문제이다. 남북한의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이 기본이다. 남북한이 해결하면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다.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면 미국과 중국도 당사자 해결 원칙을 존중하게 되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서 안 된다.

社說

야권 혼돈 속에 더욱 중요해진 호남의 선택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으로 야권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더불어 새정치연합과 안철수 신당, 호남출신 전정배 의원의 국민회의-박주선 의원-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당이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야권의 분열은 새정치연합이 오랫동안 내분에서 시달려 와 어느 정도 예견했었다. 그러나 끝내 안 전 대표가 탈당함으로써 소용돌이가 커지고 있다. 호남 지역민을 비롯한 야당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내년 4·13총선에서 '여 다야' 구도로 야권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를 털고 미래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또한 없지 않다. 야권 진영 간 혁신 경쟁을 통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계파별로 서로의 치부가 모두 드러난 만큼 반성과 각성을 통해 새로운 야당으로 재탄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희망 섞인 바람도 나오고 있다.

혁신·개혁만이 살 길

안 전 대표의 탈당 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어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혁신과 인적 쇄신을 통한 공천혁명 의지를 천명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야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한 것인가.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당 안팎에서 주문했던 개혁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안 전 대표는 그제 고향인 부산에 이어 오늘 광주를 방문해 앞으로의 정치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모든 약조건을 각오하고 당을 뛰쳐나온 그로서는 유권자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곧바로 정치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 또한 주목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새정치연합의 분열과 함께 또 한 편에서는 또 전정배-박주선-박준영 신당도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야권은 진영별로 당분간 세 확

산을 도모하는 한편, 정치 개혁을 통한 선명성·주도권 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야권이 혁신을 생존의 최우선 방책으로 정하고 경쟁을 해 나간다면 의외의 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금까지의 실망과 불신을 털어내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다 보면 등을 돌린 민심도 되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능력 있는 야당 키워야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 표심의 향방이다. 이는 올바른 야권 재정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호남을 이미 오래된 텃밭으로 여기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신당 역시 호남을 발판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터다. 전정배-박주선-박준영 신당도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고는 하지않고, 호남을 떠나서는 존립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광주·전남·북과 수도권 출생민을 포함한 호남 표심의 영향력이 가깝게는 지역 정치 물결기를 바로잡고 멀게는 한국 정치 지형 전반의 가늠자 역할을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야권의 모든 진영이 호남을 다해 호남에 대해 리브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만 보면 호남 유권자들은 주의의식을 바탕으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년 총선과 내 후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 표심은 능력 있는 야당 세력을 형성하는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선택의 기준으로는 어느 진영이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 혁신에 앞장서고 비전을 제시하느냐를 잘 따지는 것이 우선이다. 더불어 정치 투쟁만 일삼지 않고 민생을 다독일 수 있는 실력을 제대로 갖춘 집단인지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항상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춘다면 금상첨화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대중적 선택을 했던 호남 표심은 이번에도 저력을 발휘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계파 싸움과 무능력에서 탈피해 미래를 지고 나갈 든든한 야당 세력을 키워야 우리 정치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임무가 바로 우리 호남 유권자에게 부여돼 있다.

의료칼럼

성형수술은 양날을 가진 칼



고 덕호
덕교성형외과 원장

또한 코는 얼굴의 다른 부위와는 균형이 이뤄야 하고, 수술한 부위의 흉터는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코끝의 기둥은 튼튼하게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만큼 코끝의 시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코수술에서는 가급적 조직을 제거하지 말고 보존하는 수술을 해야 하며, 다양한 연골이식 적용을 통해 코 끝에 변화를 주면 더욱 좋다.

코수술하기 전에는 먼저 코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코의 두께이다. 코의 피부가 너무 두꺼우면 코 끝을 섬세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피부가 두꺼우면 붓기가 오래 가고, 반대로 코 끝에 피부가 너무 얇아도 사소한 실수가 바로 피부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수술시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코수술은 얼굴에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코가 높아지면 얼굴의 다른 부위가 낮아 보이거나 작아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코가 높아지면 눈

빛이 더욱 선명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코가 높아지면 이마와 광대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최근에 이마를 높이기 위해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높게 하면 이마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마가 지나치게 돌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코가 낮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코 수술시에는 이마 뿐만 아니라 턱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턱의 돌출이 부족하고 코 밑이 함몰돼 있으면 입이 나와 보인다. 이때 입의 돌출정도가 정상범위라면 치아교정이나 양악수술을 고려하면 된다. 이때는 원인이 되는 코와 턱을 교정해 입이 들어가 보이게 해야 한다.

이마가 낮은 사람은 코수술시 이마에 지방이식을 통해 낮은 이마를 올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수술후 이마가 더 낮아보일 수 있다.

얼굴은 코가 정중앙에서 산을 이루고 그 주위에서 이마, 광대 그리고 턱이라고

하는 작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코수술후에 얼굴의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려면 이마, 턱 끝 등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얼굴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 코수술을 시행하는 데, 이는 코막힘이나 코의 질환 유무를 미리 검사하는 것이다.

코 수술의 종류는 코끝 성형술, 콧대 높임술, 매부리코 수술, 콧날개 줄임술, 원코 교정술, 코재수술 등이 있다.

무엇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허가되지 않은 이물질들 코에 넣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 재수술을 통해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자가조직을 이용해 코 모양을 잡을 수도 있다. 간편하다고 혹은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려 허가되지 않은 이물질들을 코에 넣어서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형수술은 항상 양날의 칼과 같다고 한다. 잘하면 환자에게 큰 이득이 되지만 잘못된 경우는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포스트 2020’ 체제에서의 전력



이 선민
한전KPS 신성장사업 본부장

통해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 에너지 신(新) 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에너지 신(新)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했다.

그동안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통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개하고 한걸음 나아가 에너지 신산업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다소 큰 폭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지난 6월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시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은 전력 프로슈머 시장,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 공장, 제주도 탄소 제로섬 프로젝트 등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그중 전력 공급방식의 가장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전력 공급원은 크게 화석연료, 원자력을 주요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전력 공급원인 발전소의 발전원별로 온실가스 배출량계수(g-CO2/kWh)를 살펴보면 원자력이 10으로 가장 낮고 LNG(549), 석유(782), 석탄(991) 순으로 높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원자력을 대체할 유일한 수단은 신재생에너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5 재생에너지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1%를 잠정 집계돼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차 에너지 총 공급량 가운데 석유(35.6%)와 석탄(30.5%)의 비중이 특히 높으며 천연가스(16.3%), 원자력(15.4%), 재생에너지(1.1%), 기타(1.1%)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조 5000억원을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지에 지출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0.165%에 불과하며,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볼 때 신재생에너지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원자력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Post2020 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는 원전건설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2009년 12월 우리는 UAE에 한국형 원전 4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다.

2020년이 되면 중국은 현재 277기에서 90기까지 그 수효를 늘릴 전망이다.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아름다운 환경이 자랑인 핀란드조차 후쿠시마 사태 이전과 비교할 때 큰 정책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기후 변화라는 위기 속에 여러 가지 대안의 모색과 함께 우리는 원자력에 대한 현실적인 재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웃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송년회’ 보내자

송년회를 알리는 안내 문자가 쏟아지는 것을 보니 바야흐로 ‘송년회 시즌’인 모양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맘때쯤 소속된 단체나 모임의 송년회에 참석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할 것이다. 송년회는 지인들과 오랜만에 모여 음

식과 술을 나누며 한 해를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다. 그러나 마냥 즐거울 수는 없다. 친목과 우의를 다진다는 명분에 ‘먹고 마시는’ 오래된 송년회 문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가장 기피하는 송년회 유형으로는 ‘먹고 죽자형’을 꼽을 수 있겠다.

대화와 웃음이 가득해야할 송년회가 술로 채워지면서 모두를 부담스럽게 만든다.

그런데도 이런 문화는 잘 바뀌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셔서 진분이 쌓이고 회포가 풀린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짙게 깔려있어서다. 오죽하면 연말이면 경찰의 송년회 음주연 특별단속도 펼쳐지고 있을까.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송년회는 술

없는 ‘조촐한 모임’이라고 한다. 올해는 이웃에게 나눔을 베푸는 따뜻한 송년회를 보내고, 의미가 있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까. 그럼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분명 소중한 사람들과 더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분명한 것은 송년회라는 단어에 술에 취한 모습을 떠오르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상철·농협구미교육원 교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